

수 십 년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거나 불교교양대학을 몇 년째 다닌 분들에게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보시라고 하면 입도 떼지 못하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시중에는 불교인문서가 넘쳐나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책을 어떤 때 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불교출판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여 시작한 것이 바로 불교서적읽기 모임입니다.



“소리내어 꾸준히 읽으면 내용파악하며 ‘음미’ 가능”

## 글자 말고 ‘의미’ 를 읽어라

이 미 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또한 책 읽는 다양한 사람들을 4년째 때 오다보니 책 읽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일상생활에서의 태도, 지위 등을 알 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교제가 원만하고 활발한 성격의 사람은 책을 읽을 때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성격이거나 완벽주의자의 경우 늘림에도 책을 읽을 때 너무나 더듬거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틀리게 읽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단어를 건너뛰는 것은 예사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책 읽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스스로가 진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한 달 정도 참여하면 그 이후 책 읽는 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워집니다. 조금 더 꾸준히 하면 해당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음미하면서까지 읽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 ‘읽기’ 익숙하면 ‘토론’을

사람들은 ‘독서모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때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입니다. 사실 수많은 독서모임들은 정해진 책을 일주일 혹은 며칠 내로 각자 다 읽은 뒤에 모여서 책의 내용에 대한 자기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책 한 권의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저자만큼의 관심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도로 준비가 잘 된 독자가 아니라고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책을 읽자! 우리 모임은 말 그대로 소리내어 책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불자들이 길게는 수십 년 법문을 듣고 경을 읽어도 제 입으로 불교용어를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듣기에만 익숙했기 때문인입니다. 책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 불교용어들을 제 목소리로 소리 내고 불교를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책을 읽을 때는 그야말로 글자를 읽는다는 온통 신경이 쏠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읽을 때는 회원 대부분이 책의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말은 “글자에 집착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비난입니다. 그렇다고 깨달음이 좌복 위에 있는 것도, 매일 돌리는 염주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방편입니다. 방편은 그 사람을 목적지에 다가가게 하는 것(lupadaya)을 말합니다. 일부 스님과 불자들이 불교서적을 경원시하는 이유는 책을 그저 책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인입니다. 사람들은 불교서적을 읽으면서 그 속에 불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책의 내용을 음미하고 책에서 권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책은 그저 책일 뿐입니다.

또한 모든 책의 내용이 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저자가 아무리 위대한 수행자나 학자라 할지라도 상식에 어긋나거나 심한 비약이나 억지 주장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또한 참으로 좋은 공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것인가에 몰두하거나 어떤 상황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교 상식을 얻는 효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은 잘 쓰여야 합니다. 잘 만들어져야 하고 많이 팔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책의 생명은 ‘읽힘’에 있습니다. 내 돈을 주고 샀던 법보시로 그저 얻었던 책은 읽혀야 합니다. 보편 행원품 중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법공양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펼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려면 책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책은 그저 책일 뿐이므로 책을 읽은 뒤에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보아야 합니다. 불서 읽기 모임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 책은 책임 뿐

시중에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역관장자가 되는 법, 주식으로 부자 되는 법,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로 인해 정작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책의 저자와 출판사뿐입니다. 책 속에 돈이 들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책을 사서 읽는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 속에는 부자 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므로 책을 읽은 뒤에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보아야 합니다. 불서 읽기 모임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사찰에 도서관 생기니 너무 좋아요!

지난해 12월 17일 춘천 석왕사. 10여명의 불자들이 책상에 둘러 앉아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 단 순한 방이 아니라 도서관이라 별이 붙어 있는 여전한 도서관에서다. 사찰에 왜 도서관? 춘천 석왕사는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0일 사찰 도서관을 개관했다. 장소도 다양하다. 어린이 청소년 관련 도서 1500권을 비롯해 불서가 2500여권이 있다. 책 종류가 많고 다채로운 문 언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신도와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신도 손성환(54·춘천교대 학군담당) 거사는 “솔직히 나이가 들면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학생들이 많아 딱딱하게 느껴져서 가지 못했는데 사찰 안에 도서관이 생기니 절에 기도하러 와서 책 한 권씩 읽게 돼 좋다”며 “특히 주지스

요하지요. 현재 신도와 불교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계속 기존 도서를 받고 있어 올 하반기 정도면 1만 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도서관을 개관하기까지는 무엇보다 석왕사 주지 백은 스님의 간절한 발원과 노력이 있었다. 도서관은 원래 출세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신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지난해 12월 개관했다. 계획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언제 실행에 옮겨질지 모른다는 스님의 강한 신념이 도서관 불사를 이르게 해줬다.

백은 스님은 “앞으로 사찰은 수행 공간에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사찰 도서관이 전국에 많이 생긴다면 불자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

### 사찰 도서관-춘천 석왕사

이해하지 않은 교리내용 바로 찾을 수 있어  
독서토론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 마련할 것

라고 사찰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사찰 도서관이 생기면 불자들에게 더 근접한 책을 골라 줄 수 있어 모든 대중에게 획일적으로 하는 법문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왕사 도서관은 울 상반기 중 장자들이 일목연하게 문서를 정리되면 지역민들에게 대출 서비스는 물론 독서토론 모임 활성화, 불서 읽기 세미나, 어린이 청소년 특화공공행사 등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도서관이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이 더 필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왕사 도서관은 울 상반기 중 장자들이 일목연하게 문서를 정리되면 지역민들에게 대출 서비스는 물론 독서토론 모임 활성화, 불서 읽기 세미나, 어린이 청소년 특화공공행사 등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도서관이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이 더 필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왕사 도서관은 울 상반기 중 장자들이 일목연하게 문서를 정리되면 지역민들에게 대출 서비스는 물론 독서토론 모임 활성화, 불서 읽기 세미나, 어린이 청소년 특화공공행사 등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도서관이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이 더 필요

춘천-김주원 기자

##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직육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중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승려, 행자) 모집

-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어렵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현 무사암 주지)
-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앙불교대학원

## 기치유란 무엇인가?

최근 기치유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통합보완의학(대체의학)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기치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치유를 어떤 종교와 연관된 것으로,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안마나 지압의 일종으로, 최면이나 심리치료의 연장선으로, 등등 많은 오해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 보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기치유는 서구에서 healing touch, energy healing 등으로 불리는 통합보완의학의 한 분야의 치유 방법을 말합니다. 기치유사가 환자의 신체에 살짝 손을 대거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치유 에너지만을 방사하여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몸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으며 주문을 위우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통 기치유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9주 과정의 수련을 마치면 기치유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 기치유 연구회에서는 2008년부터 수련비를 대폭 낮추어 누구나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치유 방법을 배워서 기치유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식을 갖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기치유가 가정의학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치유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기치유 양성반 35기 개강!

개강일자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2:00 ~ 4:30  
수련회비 99만원 ~ 58만원 (9주, 매주 토요일)  
수련지도 : 윤한홍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성신문 논설위원  
참고서적: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윤한홍 지음)

한국기치유연구회 02-3482-5032  
www.gichiu.com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급 불전함

움직이거나  
닫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